

科總 차기회장에 崔亨燮박사 선출

제30회 정기총회 올 사업, 학회육성·세계화에 力點

成회장 개회사 “과학기술의 세계화 적극 추진” 崔차기회장 인사 “진흥센터 완공계기 대화합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成樂正)는 지난 2월28일 외교안보연구원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96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회장(제12대)에 崔亨燮 전과학기술처장관(75·포철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9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정책개발의 활성화 ▲학회육성 및 국제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화 및 고급두뇌 활용의 극대화 ▲과학

기술풍토조성 ▲남북 및 세계한민족과학기술교류 증진 ▲과총장기발전계획수립 등에 역점을 두고 중점사업으로 △과학기술정책개발 및 건의 △학회육성 및 정보화사업 △과학기술인력 및 학술조사연구 △재외과학육성 및 활용사업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운영 △「과학과 기술」지 혁신발간 △과학기술우수논문 시상 △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예정공기(工期)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회원단체로부터의 건립기금 모금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했다.

鄭根謨과학기술처장관, 張慶宇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을 비롯하여 閔寬植과총 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 成樂正회장, 鄭助英상임부회장, 趙完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내빈과 대의원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서울대 농생대 趙鏞涉교수의 과학기술인 신조 낭독으로 시작, 成樂正회장의 개회사, 鄭根謨과학기술처장관의 격려사, 그리고 張慶宇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의 치사가 있는 후 유공자시상에 이어 李傑三사무차장의 회무보고를 거쳐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成樂正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0년대의 취약했던 과학기술환경속에서 71개 단체로 출범했던 우리 과총이 올해로 만 30년의 연륜을 쌓기까지 3백여 단체회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명실공히 2000년대 과학기술의 주역으로서 그 선도적 역할을 다해 가고 있음은 매우 경하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과학기술창달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배양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입국·기술자립이라는 소명의를 확고히 다져나가자』고 당부했다.

성회장은 이어 『과총은 세계화·정보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각종 정책



▲지난 2월28일 외교안보연구원강당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에서 成樂正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장면.



▲ 과총의 각종 사업 및 홍보 보도에 협조해온 민주당의 金億基(金億基)통신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成樂正(成樂正)과총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을 개발하여 2000년대 선진과학기술입국이라는 국가적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한편 학회 학술활동 지원 및 학회의 과학기술정보교환을 강화하고 특히 1974년 이후 20년 이상 계속해온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도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재건의 중핵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 국제화·세계화·지방화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진흥센터'를 당초 목표대로 올 6월중에 완공, 과총자립의 기틀마련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창달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세계적인 학술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鄭根謨(鄭根謨)과기처장관은 격려사에서 『66년에 발족된 과총은 지난 30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

라 과학기술계의 대변자로서, 또 과학기술 혁신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왔다』고 말하고 『오는 21세기에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창조,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해 가는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는 그 혁신주역인 우리 과학기술인의 창조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특히 과총이 이를 떠받쳐주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에 과총이 先導的 役割을”

—— 鄭장관 격려사

정장관은 또 『과총은 회원수와 기능면에 상당한 기반을 구축한 단체로 성장한 만큼 그 경륜과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과 합리성·독창성·자율성·전문성·국제성 등 5개 부문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과총과 회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과학기술계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창조적 개혁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첨단과학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중간진입전략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先進化 도약위해 총력지원 하겠다”

—— 張위원장 축사

또한 국회 張慶宇(張慶宇)통신과학기술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팔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큰 분야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인들이 국민의 선두에서 서서 다시 한번 노력하여 우리나라를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시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과학기술분야야말로 여야정파를 떠나 국가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총력지원해야 할 분야로써 필요한 지원은 언제라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오는 6월 준공을 맞는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가 이루어져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기회장 선출은 과총임원 선출규정에 따라 閔寬植(閔寬植)명예회장, 金東一(金東一)상임고문, 成樂正(成樂正)회장 등 당연직선거인 3명과 총회에 출석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뽑은 이학부문의 蔡永福(蔡永福)씨, 공학부문의 丁明植(丁明植)씨, 농수산부문의 趙鏞涉(趙鏞涉)씨, 보건부문의 權彥赫(權彥赫)씨, 종합부문의 林瑑圭(林瑑圭)씨 등 부문대표 선거인 5

術團體總聯合會第3



▶총회후 열린 축하연에서 金東一(상임고문, 成樂正(회장, 閔寬植(명예회장, 崔亨燮(차기회장(왼쪽부터)이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명을 포함, 모두 8인으로 구성된 선거 인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날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崔亨燮 박사는 인사말에서 『과총이 창설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이도 많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차기회장으로

을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과총의 각종 사업 및 홍보 보도 등으로 협조해온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金儻基(체신과학기술전문위원회 과학기술처의 尹世俊(인력개발과장, 金在

植기획예산담당사무관, 한국과학재단 金晟洙(검사역실장, 한겨레신문 생활환경부의 趙引(變차장, 문화방송 생활과학부의 洪藝元(차장, 제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의 李長春(기자 등 7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과총사무처의 李傑三(사무차장, 金朝卿(제4본부장, 權五應(건설본부과장 등 3명에게 장기근속표창패를, 李健(제5본부장 등 4명에게는 공로패를, 그리고 회원단체 사무국의 金亨淑(대한금속학회)씨 등 2명에게는 표창패가 주어졌다.

또한 총회가 끝난뒤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하연에서 참석한 사들은 세계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전략 및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과총육성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는 崔亨燮박사.

로 선출된데 대해 큰 책임감으로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하고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 科總이 도약해야 할 시점이지만 도약이라는 것은 몇사람의 힘으로도 안되고 단시일내에 이룩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총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대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소감

4월 「과학의 달」 행사 다채

21일 기념식, 카렌다·포스터 전국배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강당에서 제28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李洪九(국무총리, 鄭根謨(과기처장관, 成樂正(과총회장 등 5백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창달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과학상·기술상·기능상·진흥상 등 대한민국과학기술상 본상(대통령상·상금 5백만원)을 수여하고 과학기술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한다.

한편 과총은 이에 앞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기처와 함께 한달동안 과

진, 각시도과학교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일정을 수록한 카렌다 및 과학의 날 기념포스터를 제작,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카렌다에는 과기처와 문화체육부가 화통 및 화포 등을 제조하여 이를 이용해 왜구를 물리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선구자인 崔茂宣(?~1395)을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각종 기념행사(기념비 건립, 특별강연회 및 세미나) 일정을 비롯 과진에서 펼치는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과학기술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전시, 강연회, 학술대회 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㉞